

발간 등록 번호

11-B260003-000158-14

Making a better world together
10호 | 2013.6월

개발협력 정책과 이슈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와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contents

목 차

1. 서론
2. 고위급패널 구성 및 보고서 논의과정
3.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4.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평가
5. 향후 Post-2015 개발의제의 발전 방향

참고문헌

1. 서론

2011년 인간개발을 위한 총 8개 글로벌 목표로 이루어진 새천년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이후 MDGs)가 소개된 이후 국제사회는 MDGs 목표달성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그러나 MDGs 달성기한인 2015년을 3년 앞둔 시점인 2012년의 MDGs 성과 모니터링 결과에 의하면, 2015년까지 MDGs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일부 지표를 제외하고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UNDP, 2012). 그 이유로는 경제공황, 식량부족, 자연재해와 같은 국제적 문제가 MDGs 달성에 악영향을 주었고, 공여국 간의 MDGs 달성을 위한 정책일관성의 부족과 함께, 많은 공여국들의 원조지원이 증가하지 않거나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또한 MDGs의 목표치 설정에 있어서 국가 및 지역간 기초선(baseline)의 차이와 역량차이에 대한 고려없이 모든 국가가 동일한 시작시점에서 목표를 달성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많은 국가들이 지역 및 국가간 차이를 보이며 MDGs를 달성하지 못하였다는 지적이다(임소진, 2012).

비록 MDGs가 1990년대 이전의 경제발전 중심의 개발 패러다임을 벗어나 사회발전 중심의 인간개발과 결과중심의 패러다임을 가져왔다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지만, 사회발전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오히려 경제발전의 중요성을 간과하게 만들었고, 기후변화, 불평등, 인권, 양성평등, 평화와 안보, 환경지속과 같은 목표가 제시되지 않았다는 면에서 MDGs는 제한적 목표라는 평가도 존재한다. 또한 MDGs가 마치 개도국에게만 해당되는 목표로 인식되어, 개도국의 개발전략 및 국가정책에 MDGs 달성을 포함하도록 강요되었고, 나아가 개도국의 MDGs 이행성과 중심으로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MDGs 이행에 대한 공여국의 책무는 찾아보기 힘들다는 비판이 있어왔다(임소진, 2012).

따라서 MDGs 달성기한인 2015년이 3년 남짓으로 다가온 2012년 국제사회는 MDGs의 한계를 넘어서 새로운 글로벌 목표수립을 위해 UN을 중심으로 Post-2015 글로벌 개발 프레임워크에 대한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일환으로 UN을 중심으로 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개발의 일환으로 2012년 1월 UN 작업반(UN System Task Team)이 구성되어 MDGs 이행성과 및 그동안의 논의를 바탕으로 향후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UN 작업반은 2012년 7월 '우리가 원하는 모두를 위한 미래 실현하기 (Realizing the Future We Want for All)'라는 보고서를 통해 인권, 평등,

지속가능성의 3가지 핵심가치와 포괄적 경제개발, 포괄적 사회개발, 평화와 안보, 환경 지속가능성의 4대 핵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한 'Post-2015 UN 개발의제를 위한 통합 프레임워크'를 소개하였다 (임소진, 2012). 그 외 UN 작업반은 총 18개에 이르는 주제별 보고서를 제시하면서, 2015년 이후의 글로벌 목표를 위한 각 주제별 방향성을 논의하였다.

이후 UNDP 중심의 UN 국가팀(UN Country Team)이 총 88개 개발도상국(이후, 개도국)에서 총 11개 주제를 중심으로 '국가 및 글로벌 주제별 논의 (National and Global Thematic Consultations)' 과정을 진행하였다. 이 논의과정은 각 개도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UN 국가 코디네이터(UN Resident Coordinator)의 리더십 아래 개도국 맥락에서 필요로 하는 Post-2015 개발의제에 의견을 교류하였고, 이 과정에서 정부 뿐 아니라 시민사회, 민간부문, 미디어, 대학 및 연구소(think tanks) 등이 모두 참여하여 다양한 논의의 장을 마련할 수 있었다.¹⁾ Post-2015 개발의제 논의과정에 이렇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한 것은 국제적인 금융위기나 자연재해와 같은 상황이 지속적인 원조지원의 제약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비원조재원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UN 반기문 사무총장은 2012년 8월 1일 총 27명으로 구성된 'UN 고위급패널 (UN High 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이후 HLP)'을 구성하여 Post-2015 개발 목표와 체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입장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²⁾ HLP의 위원은 세계 각국의 정부 및 비정부간 균형과 지역적 균형을 고려하여 아프리카 6명, 아시아 8명, 동유럽 2명, 라틴카리브 4명, 서유럽 및 기타국가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최빈개도국, 중소도서개도국, 시민사회, 지역정부, 민간부문, 학계 및 청소년 대표가 포함되었다. 또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의 절반은 여성으로 이루어졌다. 이들 HLP 위원들은 모두 개인 자격으로 활동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였으며 (in their personal capacity), 패널 공동의장으로는 David Cameron 영국 총리, Ellen Johnson Sirleaf 라이베리아 대통령, Susilo B.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임명되었다.

UN HLP는 한 차례의 임시회의(Interim Meeting)를 포함한 총 5회의 회의를 거쳐 최종회의에서 HLP 보고서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 지속가능한 개발을 통

1) 11개 주제별 논의 내용과 88개 국가별 논의 내용은 오픈포럼으로 마련된 '우리가 원하는 세계 (The World We Want)'라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www.worldwewant2015.org/sitemap>)

2) 27명의 패널위원 중 감성환 전 외교부 장관이 포함되어, 한국 정부는 Post-2015 개발의제 논의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입장을 적극 반영하도록 노력하였다.

한 빈곤퇴치와 경제전환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을 사무총장에게 제출하였다 (UN, 2013). HLP 보고서는 5대 핵심 권고사항과 총 12개 목표(goals)와 54개 세부목표(targets)로 이루어진 예시적 글로벌 목표를 제시하였으며, 이는 UNDP의 국가 및 글로벌 주제별 논의(National and Global Thematic Consultations) 결과와 함께 2013년 9월 UN 총회기간 중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특별회의'에서 발표될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사무총장 보고서'의 기초자료로 이용될 예정이다. UN 사무총장 보고서는 이후 2년간 정부간 협상을 위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특히 HLP 보고서에 소개된 5대 핵심 권고사항 및 예시적 글로벌 목표는 UN 사무총장 보고서에 대부분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향후 Post-2015 글로벌 목표의 초석 역할을 하는 HLP 보고서에 대해 분석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선 HLP 보고서를 위한 논의과정에 대해 살펴보고, HLP 보고서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였다. 또한 HLP 보고서 발표 이후의 국제사회의 초기 평가도 포함하였으며, 나아가 향후 Post-2015 글로벌 개발 목표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2. 고위급패널 구성 및 보고서 논의과정

HLP 제1차 회의는 2012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렸다. HLP 구성 이후 첫 회의의 니만큼 1차 회의에서는 2013년 5월을 목표로 한 HLP 보고서의 비전에 대한 구상과 이후의 패널 활동 계획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 제1차 HLP 회의에서는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내 글로벌 목표는 MDGs의 장점을 계승하면서, MDGs와 같이 단순하고 명확하며 측정가능한 목표가 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이루어졌다. 또한 2012년 6월에 있었던 Rio+20 회의에서 논의된 지속가능한 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이후 SDGs)와도 일관성 있는 목표가 되어야 하며, 사회적 인간개발 뿐 아니라 포용적 경제성장에 대한 고려를 토대로 한 목표가 설립되어 한다는 의견에 대부분의 패널위원들이 동의했다. 나아가 목표의 설립 뿐 아니라 목표 달성을 위한 이행 및 모니터링 메커니즘의 중요성도 강조되었다.

이후 열린 제2차 패널회의는 2012년 10월 31일에서 11월 2일까지 3일간 런던에서 열렸으며, HLP 보고서의 기본 구조 및 형식에 대한 논의를 통해 Post-2015 개발목표는 2030년까지를 달성기한으로 정하는 것으로 의견이 수렴되었다. 또한 개인, 국가, 글로벌 차원에서 각각 관련 목표를 설정하는 3단계 접근법(Three Tiered Approach)과 글로벌 차원의 목표와 국가별 목표를 구분하는 이중 구조적 접근법(Two Track Approach)에 대한 제안이 이루어졌다. 동시에 제2차 HLP 회의에서는 ‘인간개발(Human Development)’과 ‘고용 및 생계(Jobs and Livelihoods)’에 대한 주제토론이 함께 이루어졌는데, 런던회의의 주제토론은 주로 사회보호층 중심의 접근법(Social Protection Floor Approach)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었다. 인간개발과 관련하여 특히 빈곤퇴치를 위한 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MDGs의 초등교육에 제한된 글로벌 목표를 Post-2015 개발의제에서는 중등교육과 직업교육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입학률 뿐 아닌 양질의 교육에 대한 목표제시도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고용 및 생계 주제와 관련하여 전 세계 청년실업 문제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었으며, 고용창출을 위한 경제성장과 민간부문 활성화와 같은 내용이 논의되었다.

HLP 제3차 회의는 ‘지속적 번영을 위한 국가빌딩블록(National Building Blocks for Sustained Prosperity)’이라는 주제로 2013년 1월 29일에서 2월 1일까지 라이베리아 수도인 몬로비아에서 열렸다. 몬로비아 회의에서는 경제전환 가능성 소와 저해요소,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성과, 민간부문의 역할, 거버넌스와 제도구축(분쟁 및 취약국 중심), 그리고 아프리카 개발현황 및 당면과제를 중심으로 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HLP 위원들은 4일간의 회의 내용을 바탕으로 21세기 도전과제에 대한 대처를 위해 포용적 경제성장을 강조하는 동시에 환경과 평화 및 안보분야까지 포괄하는 내용의 ‘몬로비아 커뮤니케(Monrovia Communiqué)’를 채택하였다. 특히 몬로비아 회의에서는 김성환 전 외교부 장관의 녹색성장에 대한 발제 내용을 몬로비아 커뮤니케에 반영하였다(We should explore policy options for green growth as one of the important tools available to promote sustainable development)(UN HLP, 2013a). 몬로비아 커뮤니케는 HLP 보고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마련되었으며, 몬로비아 커뮤니케의 비전부분은 다음의 Box 1과 같다.

Box 1. 몬로비아 커뮤니케 中 비전부분 발췌

Our vision and responsibility is to end extreme poverty in all its forms in the context of sustainable development and to have in place the building blocks of sustained prosperity for all. We seek to gain in poverty eradication irreversible. This is a global, people-centred and planet-sensitive agenda to address the universal challenges of the 21st century: promoting sustainable development, supporting job-creating growths, protecting the environment and providing peace, security, justice, freedom and equity at all levels.

출처 : UN HLP, 2013a

제4차 회의는 2013년 3월 24일에서 27일 3일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발리회의의 첫날은 특히 시민사회를 초청하여 시민사회의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였다. 이후 이틀간의 회의기간동안 HLP는 Post-2015 글로벌 목표의 이행 메커니즘과 파트너십, 그리고 개발재원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에 대해 김성환 전 장관은 Post-2015 이행 메커니즘을 위해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하는 방안의 보고서를 회람하였다. 따라서 제4차 회의 결과문인 ‘발리 커뮤니케 (Bali Communiqué)’에서는 글로벌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a renewed Global Partnership)’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Box 2 참고). 발리 회의에서 HLP 사무국은 총 10개로 구성된 Post-2015 예시적 목표안을 제안하여, HLP 보고서를 제출하게 될 제5차 회의 이전까지 예시적 목표 개발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였다.

Box 2. 발리 커뮤니케 中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제시부분 발췌

We agreed on the need for a renewed Global Partnership that enables a transformative, people-centred and planet-sensitive development agenda which is realised through the equal partnership of all stockholders. Such partnership should be based on the principles of equity, sustainability, solidarity, respect for humanity, and shared responsibilities in accordance with respective capabilities.

출처 : UN HLP, 2013b

제5차 HLP 회의 이전, HLP 사무국은 패널보고서 최종 문안에 대한 협의를 위해 2013년 5월 12일에서 15일 간 뉴욕 임시회의를 주최하였다. 임시회의에서 HLP 사무국은 'MDGs에서 예시적 글로벌 개발목표로 (From the MDGs to Illustrative Global Development Goals)'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제4차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예시적 목표안의 수정안과 설명자료를 회람하였고, 'HLP 보고서 초안 (Selected Draft Text)'을 소개하여 HLP 보고서의 서술적 부분에 대한 패널 위원들의 의견을 공유하였다. 나아가 임시회의에서는 그동안 컨센서스를 이루지 못한 잔여쟁점(pending issues)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평화와 분쟁, 고용, 불평등, 개발재원과 같은 주제를 독립 목표로 수립해야 하는지, 여러 목표의 세부목표로 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와 SDGs와 Post-2015 개발 목표와의 관계에 대한 방향성 등이 추가적으로 논의되었다.

이러한 총 5차례 회의 이후, HLP는 2013년 5월 29일에서 30일 양일간 뉴욕에서 열린 제5차 HLP 회의를 통해 지난 9개월간의 노력의 결실인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명명된 보고서를 채택하였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보고서는 현재 대중에 공개되어 있다.

3.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2000년 새천년선언(Millennium Declaration)이 합의된 후, MDGs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들이 이루어졌고, 그로 인해 전 세계는 놀랄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5억명의 인구가 절대빈곤에서 탈출하였고, 해마다 3백만명에 달하는 아동이 사망의 위기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5명 중 4명의 아동이 다양한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의 혜택을 받게 되었고, 모성사망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사회적 이슈로 인식되었다. 말라리아 사망률은 1/4로 감소하였으며, 더 이상 HIV 감염이 죽음을 의미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단순한 노력의 결과가 아닌, 경제성장과 정부정책, 시민사회의 참여와 MDGs에 대한 글로벌 차원의 기여가 종합된 총체적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MDGs의 많은 부분이 해결과제로 남아있는 것 또한 사실이다. MDGs 이행 성과에 있어서 지역간 그리고 국가간 편차가 크며, 특히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수치로 나타나는 목표치와 목표 달성가능한 현실과의 차이(gap)도 존재하였다. 나아가 MDGs 개발의 배경이 된 1990년대와 새로운 글로벌 목표 수립의 기준이 되는 2013년 현재는 많은면에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 세계는 과거에 비해 더욱 도시화 되었고, 더 많은 중산층이 생겨났으며, 고령화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우리는 전 세계가 빠르게 연결되는 동시에,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의 세계화(globalisation)의 시대에 살고 있다. 무엇보다도 현재는 과거에 비해 미래를 더욱 예측하기가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개도국 뿐 아니라 선진국 또한 재정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으며, 많은 국가들이 자연재해의 피해를 입게 되었다. 나아가 전 세계적 경제(the world economy)의 구조적 변화없이 국가의 경제성장을 통해 수억명의 빈곤을 해결한다는 것은 현실적이지 못하다. 한편, 빈곤퇴치가 원조 또는 국제협력에 국한되는 과제라는 생각도 탈피하여야 한다. 우리는 과거 MDGs 이행과정에서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 개도국의 역할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미래사회 지속적 번영을 위한 개발의제는 모든 국가 및 개인에게 해당되는 해결과제인 것이다.

따라서 Post-2015 의제는 현 시대의 글로벌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정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Post-2015 개발 목표는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해결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며, 그동안 논의에 포함되지 않았던 대상에 대

한 고려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전 세계의 최빈곤층의 절반이 살고있는 분쟁 및 취약국에 대한 차별화 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나아가 Post-2015 개발의제는 단일화된 지속가능한 개발의제로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의 3가지 개념을 분리하여 사용해왔다. 그러나 이들 개념은 종종 혼용되어, 개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를 수행함에 있어서 많은 혼란을 가져왔다. 따라서 우리는 개발, 지속가능한 개발, 기후변화라는 개념들을 하나의 의제로 단일화해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위해 HLP 위원들은 새로운 글로벌 목표에 대해 약 120개국의 5천개가 넘는 시민사회기구(Civil Society Organisations, 이후 CSOs), 연간 수익이 8조달러 이상인 30개국의 250개 민간기업, 선진국 및 개도국의 학자들, 국제 및 지역 비정부기관(Non-Governmental Organisations, NGOs), 그리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15년 이후의 글로벌 개발의제에 대해 최우선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5대 핵심사항을 논의하였다. 즉, 지속적 번영이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Post-2015개발의제에서는 Box 3과 같은 5대 핵심과제를 우선적으로 포함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Box 3. Post-2015 의제를 위한 최우선 변화과제

1. 절대빈곤 퇴치 (Leave No One Behind)
2.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 (Put Sustainable Development at the Core)
3.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 (Transform Economies for Jobs and Inclusive Growth)
4. 평화구축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 (Build Peace and Effective, Open and Accountable Public Institutions)
5.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 (Forge a new Global Partnership)

출처 : UN, 2013

앞의 5가지 우선과제 중 ‘절대빈곤 퇴치’는 MDGs의 기본 목표인 절대빈곤퇴치 노력을 Post-2015 개발의제에도 포함하여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목표달성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그러나 Post-2015 개발의제 맥락에서 의미하는 절대빈곤 퇴치란 단순한 빈곤퇴치가 아닌, 빈곤과 배제(exclusion) 그리고 불평등과 같은 빈곤의 원인을 제거함으로써 모든 형태의 빈곤을 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과제인 ‘지속가능한 개발의 중점화’란 국제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사회·경제·환경을 통합적으로 모색할 것을 강조한다. 이는 또한 소비와 생산의 패턴과 탄소배출과 관련된 이슈를 포함한 지속가능한 개발과 빈곤퇴치 중심의 녹색경제(green economy) 촉진을 포함한다.

다음으로 HLP는 ‘일자리 창출과 포용적 성장을 위한 경제구조 변화’라는 우선과제를 제시함으로써 절대빈곤을 퇴치하고 개인의 생계를 향상시킬 수 있는 경제적 구조전환 및 도약을 위한 경제적 기회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빈곤 및 불평등을 감소시키고 포용적 성장이 가능한 일자리다운 일자의 기회창출과 생계보장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더 높은 성장을 야기하는 성장이 가능하도록 지속적으로 가치를 부가하고 생산성을 증가시키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국가는 비즈니스가 가능한 안정된 환경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장을 통해 새로운 번영과 새로운 기회가 가능할 수 있도록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을 지원하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여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네 번째 우선과제는 ‘평화구축 및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책임있는 국가제도 구축’이며, 이 과제는 분쟁 및 폭력으로부터의 자유가 평화롭고 번창한 사회 구축을 위한 필수 기본요소이며, 이를 위해 정부는 효과적이고 책임있는 국가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투명성과 책무성 강화를 통해 평화를 위협하는 요소들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구축’은 모든 국가와 개인은 공동운명체라는 관점에서 Post-2015 개발의제를 의한 변화과제 중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란 보편성, 공평성, 지속가능성, 연대(solidarity),

인권, 개발권, 역량에 대한 책임과 같은 원칙을 기본으로 한 국가 및 국제정치에
서의 새로운 의미의 글로벌 파트너십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
은 MDGs와 비교하였을 때, 공여기관과 개도국간의 파트너십을 넘어서, 국가,
지방정부, 국제기구, 민간부문, CSOs, 재단 및 자선단체, 과학자 및 학자, 그리고
사람(개인)이라는 다양한 주체를 모두 포함한다.

이와 같은 5대 우선 변화과제는 표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총 12개의 목표
(goals)와 54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이루어진 글로벌 목표 예시안 개발 과정에
서 우선적으로 고려되었다. HLP가 제안한 예시적 글로벌 목표는 MDGs의 글로
벌 프레임워크로써의 성공요인을 그대로 계승하였다고 할 수 있다. 즉, MDGs가
글로벌 프레임워크로써 성공적이었다고 평가하는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제
한된 수의 이해하기 쉬운 목표를 제시하고, 측정가능한 목표치를 정해진 기간내
달성하도록 하였다는 것이고, 이에 따라 Post-2015 개발 목표 역시 제한된 수
의 목표를 이해하기 쉽게 제시하고, 정해진 시간안에 측정가능한 목표치를 달성
할 수 있도록 예시안을 개발한 것이다. 다시 말하면, Post-2015 개발 목표 역시
구체적이고 (Specific), 측정가능하며 (Measurable), 달성가능하고 (Attainable), 관
련성 있으며 (Relevant), 시간적 목표가 있는 (Time-bound) SMART한 목표로 개
발하고자 한 것이다.

▶ 표 1. Post-2015 HLP 보고서의 예시적 글로벌 목표 및 세부목표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1. 빈곤퇴치 (End Poverty)	1a. 1일 소득 1.25 달러 미만 인구 근절과 2015년 기준 국가빈곤선 미만 생활자 비율 x% 감소 ^{1,2}
	1b. 토지, 재산 및 그 외 재산에 대한 보장된 권리에 대한 여성과 남성, 커 뮤니티, 사업의 비율 x% 증가 ^{2,3}
	1c. 사회보장시스템에 대한 취약층 및 빈곤층 x% 보호 ^{2,3}
	1d. 회복가능성 구축과 자연재해에 의한 사망률 x% 감소 ²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2. 소녀 및 여성 역량 강화와 양성평등 달성 (Empower Girls and Women and Achieve Gender Equality)	2a. 소녀와 여성에 대한 모든 종류의 폭력 방지 및 근절 ^{1,2,3}
	2b. 미성년 결혼 근절 ^{1,2}
	2c. 재산 소유 및 상속, 계약서 서명, 사업 등록 및 은행계좌 설립에 대한 여성의 동등한 권리 보장 ^{1,2}
	2d. 정치적, 사회적, 공적 생활에 있어서 여성에 대한 차별 제거 ^{1,2,3}
3. 양질의 교육 및 평생교육 제공 (Provide Quality Education and Lifelong Learning)	3a. 유아교육 시작 및 완료가 가능한 아동비율 x% 증가 ²
	3b. 모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읽고, 쓰고, 계산할 수 있는 최소의 교육수준에 준하는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초등교육을 완료하도록 보장 ^{1,2}
	3c. 모든 아동이 어떠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중등교육의 초급단계를 시작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청소년의 인정되고 측정가능한 학습 성과 비율 x% 증가 ^{1,2}
	3d. 직장에서 필요로 하는 기술능력 및 직업기술을 갖춘 청년층 및 성인 남녀의 비율 x% 증가 ^{2,3}
4. 건강한 삶 (Ensure Healthy Lives)	4a. 예방가능한 영아 및 5세 미만 아동 사망률 근절 ^{1,2}
	4b. 아동, 청소년, 위험 환경 노출 성인, 고령층의 모든 예방접종 비율 x% 증가 ^{1,2}
	4c. 산모사망 비율 10만명 당 x명으로 감소 ^{1,2}
	4d. 보편적 성보건 및 모자보건과 권리 보장 ^{1,2}
	4e. HIV/AIDS, 결핵, 말라리아, 소외 열대 질환, 주요 비전염성 질환 등의 질병으로 인한 부담감소 ²
5. 식량안보 및 영양개선 (Ensure Food Security and Good Nutrition)	5a. 모든 인구의 기아퇴치와 충분하고, 안전하며, 수용가능하고, 영양가 있는 식량권 보호 ^{1,2}
	5b. 모든 5세 미만 아동의 성장저해요소(stunting) x%, 신장 대비 저체중(wasting) y%, 빈혈 z% 감소 ^{1,2}
	5c. 소작농 수익률의 지속가능한 증가와 농지관개(irrigation) 이용을 중심으로 한 농업생산성 x% 증가 ³
	5d. 지속가능한 농업, 해양, 담수어업 관행의 수용과 지속가능한 수준으로의 지정 어류비축 재구축 ¹
	5e. 수확 후 손실 및 음식물 쓰레기 x% 감소 ³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6. 물 및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달성 (Achieve Universal Access to Water and Sanitation)	6a. 가정, 학교, 보건센터, 난민캠프에서의 안전한 식수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 ^{1,2}
	6b. 노상배변(open defecation) 근절과 학교 및 직장에서의 위생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보장, 그리고 가정에서의 위생에 대한 접근성 x% 증가 ^{1,2}
	6c. 공급에 맞는 담수회수 제공과 농업관련 물 효율성 x%, 산업관련 물 효율성 y%, 도시지역 물 효율성 z% 증가
	6d. 모든 지방 및 산업 폐수 재활용 또는 방출 전 사전처리 ^{1,3}
7. 지속가능한 에너지 보장 (Secure Sustainable Energy)	7a. 글로벌 에너지 믹스에 대한 재생가능 에너지 비율 두 배 증가
	7b. 현대 에너지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 보장 ^{1,2}
	7c. 건물, 산업, 농업, 교통 에너지 효율성 향상 글로벌 비율 두 배 증가
	7d. 낭비성 소비를 촉진시키는 비효율적 유가보조금 단계적 폐지 ^{1,3}
8. 일자리 창출, 지속가능한 생계, 공평한 성장 (Create Jobs, Sustainable Livelihoods, and Equitable Growth)	8a. 일자리다운 일자리 및 생계 수 x 증가 ²
	8b. 교육, 취업, 훈련 대상에서 제외된 청년비율 x% 감소 ²
	8c. 교통 및 ICT와 같은 금융서비스 및 인프라에 대한 보편적 접근성 제공에 의한 생산적 역량 강화 ^{1,2,3}
	8d. 가능한 기업환경 조성 및 기업가 촉진을 통한 새로운 상품으로부터의 부가가치 Y와 새로운 시장 x 증가 ^{2,3}
9. 천연자원 자산의 지속가능한 관리 (Manage Natural Resource Assets Sustainably)	9a. 모든 정부 및 주요 기업의 경제·사회·환경적 회계장부 공개 ¹
	9b. 정부 조달의 지속가능성 고려 x% 증가 ³
	9c. 생태계, 종(species),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보호장치(safeguard) 마련
	9d. 삼림파괴 x% 감소와 재식림(reforestation) y% 증가
	9e. 토양품질 향상, x톤의 토양 침식 감소, 사막화 방지

글로벌 목표 (Goals)	국가별 세부목표 (Targets)
10. 국가거버넌스와 효과적 제도 보장 (Ensure Good Governance and Effective Institutions)	10a. 출생신고와 같은 자유롭고 보편적인 법적 신분 제공 ^{1,2}
	10b. 언론, 집회, 평화로운 시위의 자유와 독립적 매체 및 정보에 대한 접근성 보장 ^{1,3}
	10c. 모든 단계에서의 정치적 과정의 대중적 참여와 시민참여 증가 ^{2,3}
	10d. 정보에 대한 대중권리와 정부 데이터 이용 보증(guarantee) ¹
	10e. 뇌물수수 및 부패 감소와 공무원의 책무 보장 ³
11.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사회 보장 (Ensure Stable and Peaceful Societies)	11a. 외인사(violent death)의 10만명 당 x명으로 감소와 모든 종류의 아동학대 근절 ^{1,2,3}
	11b. 법적기관(justice institutions)의 접근성, 독립성, 행정력 (well-resourced) 보장과 정당한 절차를 위한 권리 존중 ^{1,2,3}
	11c. 조직적 범죄 등을 포함한, 분쟁을 야기하는 외부 스트레스 요인 제거 ³
	11d. 안보를 위한 군대, 경찰, 사법부의 역량, 전문성, 책무성 강화 ³
12. 글로벌 차원의 가능한 환경 조성 및 장기적 재원 촉진 (Create a Global Enabling Environment and Catalyse Long-Term Finance)	12a. 투명하고 공정하며 개발에 우호적인 무역 시스템 지원 ³
	12b.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보장하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개인 외국인 투자를 장려하는 개혁 이행 ³
	12c.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에 따라, 글로벌 평균 기온 증가를 산업화 이전 단계 이상인 2°C 이하로 유지
	12d. 공여국의 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GNP 대비 0.7% 목표화, 최빈개도국에 대한 ODA 지원 GNP 대비 0.15%에서 0.20%로 목표화, 그리고 그 외 국가들의 보완적 재정지원의 자발적 목표화
	12e. 불법자금흐름(illicit flows) 및 탈세 감소와 은닉자산(stolen-asset) 회복 x ³ 달러 증가 ³
	12f. 과학, 기술, 혁신, 개발 데이터에 대한 협력 및 접근성 촉진 ³

출처 : 저자 재작성 / 참고문헌 : UN, 2013: 30-31

1 : 0% 목표를 포함한 글로벌 최저기준 적용 (Candidates for global minimum standards, including 'zero' goals)

2 : 향후 구분이 필요한 지표 (Indicators to be disaggregated)

3 : 적합한 지표화를 위해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작업 필요
(Targets require further technical work to find appropriate indicators)

따라서 HLP는 표 1과 같이 제한된 수의 목표를 제안하였으며, 목표 달성 기한은 국제정세의 빠른 변화를 감안하여 15년의 이행기간인 2030년까지가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달성가능한 목표가 되기 위하여 12개 목표는 글로벌 목표로 제시하되, 54개 세부목표는 국가별로 목표치를 상황에 맞게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1a에서 1일 소득 1.25 달러 미만 인구 근절과 2015년 기준 국가빈곤선 미만 생활자 비율을 'x%' 감소한다고 제시함으로써, 글로벌 목표인 빈곤퇴치를 위해 모든 국가가 1일 소득 1.25 달러 미만 인구는 근절하되, 국가빈곤선 미만 생활자에 대한 감소비율은 국가별 상황에 맞도록 결정하는 것이다. 또한 목표치가 측정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각 세부목표에 1, 2, 3의 각주를 두어 각각 0% 목표를 포함한 글로벌 최저기준을 적용한 경우, 향후 구분이 필요한 지표, 그리고 적합한 지표화를 위해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작업이 필요한 경우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내용적인 면을 살펴보면, 5개 우선 변화과제를 중심으로 목표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Post-2015 의제가 Rio+20 결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또한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강한 파급효과(strong impact)가 있고, 개인, 기업, 정부와 같은 개발 주체에 호소력있는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그리고 전문용어를 될 수 있는 한 배제하여 모든 이가 이해하기 쉬운 내용이 되도록 노력하였다. 이를 위해 다양한 그룹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중 컨센서스를 이룬 내용들을 중심으로 예시적 목표를 개발하였다. 또한 의욕(ambition)과 현실(realism)간의 균형을 고려하는 동시에, 국가 내 가능한 넓은 범위의 계층을 포함할 수 있도록 고려하였다. 따라서 국가별 목표치는 야심차게 설정하되 현실을 반영하도록 권유하고, 일부 글로벌 목표는 최저기준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이 정의한 최우선적 변화는 더 나은 그리고 더 많은 장기적인 재정지원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예시적 목표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원칙은 '파트너십'이었다. 비록 MDGs의 Goal 8의 글로벌 파트너십의 이행결과가 다소 실망적인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파트너십은 글로벌 목표 이행의 중심역할을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런 의미에서 HLP는 기존의 글로벌 파트너십을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재정립함으로써 모든 개발협력의 주체가 Post-2015 글로벌 목표를 이행하는데 동참할 수 있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HLP는 Post-2015 의제의 성공적인 이행을 위해 2002년 멕시코 몬테레이에서 합의된 개발재원에 대한 ‘몬테레이 컨센서스 (Monterrey Consensus)’ 정신의 지속적 유지를 강조한다. 즉, 국가는 스스로의 경제 및 사회적 개발을 위한 우선적 책임을 가진다는 원칙과 국가정책 및 개발전략의 역할에 대한 중요성을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도 적용하여 일관성있는 재정체계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해야하는 것이다.

나아가, 목표 수립 뿐 아니라 이행 메커니즘과 책무성에 대한 고려 역시 Post-2015 글로벌 목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새로운 글로벌 목표 이행에 있어서 MDGs와 비교하여 가장 급선무로 이루어져야 할 과제는 ‘데이터 혁명 (Data Revolution)’이다. 목표달성을 위한 지표 이행과정의 효과적 모니터링을 위해 추적가능한 통계와 정보가 가능해야 하며, 양적인 부분을 넘어서 질적으로 신뢰가능한 데이터를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에서는 특히 다자협력 및 국제협력이 더욱 강조된다. 글로벌 모니터링을 위한 국가간 동료검토 메커니즘과 함께 다자기구의 모니터링 역량을 토대로 국가통계시스템이 미약한 개도국의 통계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HLP는 ‘개발 데이터에 대한 글로벌 파트너십 (Global Partnership on Development Data, 이후 GPDD)’를 구축하여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재단, 민간부문의 통계기관이 협력할 것을 촉구하였다. HLP는 특히 2016년 1월부터 GPDD를 가동하여 Post-2015 목표달성 이행성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기초선(baseline) 작업을 시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HLP는 5대 우선 변화과제를 중심으로 한 12개의 목표와 54개의 세부목표 예시안을 제안하였다. HLP가 제시한 예시적 목표는 무엇보다도 각각의 목표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의 목표만으로는 지속가능한 개발이 불가능하며, 모든 목표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이행되어야만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HLP의 이러한 분석과 논의의 결과가 모두 긍정적이라고만은 할 수 없다. 본 논문은 다음 장을 통하여 HLP 보고서에 대한 평가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4. UN 고위급패널 보고서 평가

UN HLP 보고서에서 제시한 Post-2015 글로벌 목표 예시안은 빈곤퇴치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개발에 대한 명확하고 통합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Benson, 2013; Melamed, 2013; Tran, 2013). HLP의 예시적 목표는 MDGs의 주요 주제였던 보건, 교육, 빈곤을 넘어서 MDGs에서 다루지 않았던 환경 및 젠더, 그리고 거버넌스와 같은 주제에 대해 독립적 목표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목표로의 모습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Kenny, 2013a; Lawson-Remer, 2013).

HLP 예시적 목표는 개발재원의 양적인 측면을 넘어서 질적인 측면까지도 향상 시키고자 하였으며, 정부를 포함하여 시민사회와 민간부문과 같은 다양한 주체의 의견을 수렴한 목표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Green and Hale, 2013). 나아가 HLP가 제시한 예시적 목표안은 글로벌 목표와 국가별 목표의 이중구조적 접근법(Two Track Approach)을 통해 모든 국가와 지역의 맥락에 맞는 목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는 면에서 기존의 글로벌 목표보다 진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Benson, 2013).

특히 HLP 보고서는 데이터 혁명을 강조하였는데, 이를 통해 정보에 대한 접근성 뿐 아니라 투명성과 책무성이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ONE Campaign, 2013; Palmer, 2013). 나아가 데이터 혁명은 거버넌스를 강화하여 거버넌스 관련 예시목표인 Goal 10의 달성을 위한 좋은 이행수단이 될 수 있다는 평가이다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평가와는 다르게, HLP 예시적 목표안에 대한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 비록 HLP가 다양한 글로벌 의제를 포함한 목표 제시에는 성공하였으나, 현실적으로 그 목표들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지에 대한 고려가 함께 이루어지지 못하였다는 점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Benson, 2013; Kenny, 2013a; Morden, 2013). 즉, 이행가능한 목표로 개발되었을 때 진정 그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12개 목표 중 ‘평등’과 ‘인권’을 독립된 목표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비판도 적지 않다. 평등의 경우, 비록 HLP의 54개 세부목표에 평등의 개념이 반영되기는 하였으나, 그동안 국제사회의 긴 논의를 돌아보았을 때, 평등을 독립적인 목표로 강조한 점과는 상반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ACORD, 2013; Benson, 2013; Green and Hale, 2013; Melamed, 2013; Oxfam International, 2013; Tran, 2013).

나아가 ‘빈곤’이라는 개념 자체가 수입, 보건, 교육과 같이 구시대적 논의에 그치는 발상이며 미래 사회는 ‘복지(wellbeing)’에 대해 초점을 두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HLP 보고서는 빈곤퇴치를 Goal 1로 제시함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미래지향적 글로벌 목표 설정에 있어서는 실패하였다 할 수 있다 (Green and Hale, 2013).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HLP 보고서가 지속가능한 개발을 강조한 면을 간과한 경향이 있다.

목표(goals)와 관련된 위와 같은 비판과 함께, 세부목표(targets)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는데, 특히 ‘적합한 지표화를 위해 목표치에 대한 추가적인 기술적 분석 작업 필요’라는 각주 3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측정가능한 목표수립이라는 의미에서는 실패하였다고 평가되고 있다. 특히 Goal 11의 모든 세부목표 및 그 외 다수의 세부목표가 각주 3과 함께 제시됨으로써 향후 이 목표 자체가 이후의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측정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나아가 Goal 10의 모든 세부목표와 Goal 12의 세부목표 12a, b, f를 포함한 다수의 세부목표에서 수량화 된 목표치가 제시되지 않음으로써 어느 정도의 성과를 목표 달성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가 불분명하여 이 역시 정부간 협의과정에서 제외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Kenny, 2013b).

마지막으로 이행 메커니즘에서 강조하고 있는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MDGs Goal 8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도록 진정한 ‘새로운’ 파트너십이 될 수 있느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Kenny, 2013b). 예를 들어, 개발주체로서의 민간부문을 포함하는 데에 있어서,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부문이 정의와 형평성을 고려한 성장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동시에 HLP 보고서가 자유시장과 민간부문의 개발에 대한 재원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전통적인 원조와의 균형을 조화롭게 제시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도 있다 (Social Watch, 2013).

본 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HLP의 Post-2015 예시적 목표안은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는 반면, 세부적인 면에서 추가적으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향후 진행될 정부간 협의 및 Post-2015

이행 메커니즘 논의에서 각 목표의 이행가능성, 측정가능성, 정치·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한 현실적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5. 향후 Post-2015 개발의제의 발전 방향

본 연구는 Post-2015 개발의제를 위한 HLP 논의과정과 보고서 내용, 그리고 그에 대한 평가내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는 Post-2015 개발 목표수립 뿐 아니라 이행과 모니터링 역시 중요한 과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 노력이 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이행되기 위해서는 각 국가의 개발계획 및 전략(National Development Plan and Strategy)이 글로벌 목표와 통합될 수 있도록 정책적인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Post-2015 개발 목표의 이행을 국가차원에서 지지하기 위한 정치적 컨센서스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국제적인 책무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UN은 2013년 9월 25일로 계획된 ‘UN 총회 MDGs 특별세션’에서 국제사회의 일원인 각 국가들이 Post-2015 개발의제에 대한 최종 합의에 대해 확실하게 동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동시에, 글로벌 목표 수립과 관련하여 Rio+20 회의를 통해 설립된 열린작업반(Open Working Group)이 2014년 UN 총회에 지속가능한 목표(SDGs와 구분되는 일반적인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의미)에 대한 권고문을, 또 다른 UN 작업반(UN working group)은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개발재원 관련 보고서를 사무총장에게 제출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2014년 UN 총회의 ‘MDGs 및 Post-2015 개발의제 세션’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러한 과정 이후, 2015년 MDGs에 대한 최종평가와 함께 새로운 Post-2015 글로벌 목표에 대한 최종합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나 과연 Post-2015 글로벌 목표의 이행 시작을 2015년 1월로 할 것인지, 아니면 UN 총회가 있는 9월 이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뚜렷한 계획이 제시되지 않았다.

한편, UNDP를 중심으로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이행 메커니즘 및 모니터링에 대한 별도의 논의절차가 시작될 예정인데, 이는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따라서 HLP 논의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된 부

산 글로벌 파트너십의 메커니즘을 Post-2015 개발 프레임워크 이행 을 위한 동력으로 사용하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UNDP 본부와 외교부 공동주최의 컨퍼런스 형태로 2013년 10월 7일 이행 메커니즘 절차의 시작행사(kick-off)가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컨퍼런스를 계기로 국제사회는 아젠다 형성 뿐 아니라 이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한다고 할 수 있겠다.

이와 같이 Post-2015 개발 목표는 MDGs와 비교하여 오랜 시간의 준비기간이 걸리고 더 많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한편 너무 많은 이해관계자가 원하는 목록(wish list)을 모두 반영할 수는 없을 것이다. HLP 보고서에서 제안한 12개 목표와 54개 세부목표 역시 MDGs와 비교하여 너무 긴 목록이라 할 수 있다. 이는 또한 향후 2년간 이루어질 정부간 협상과정에 혼잡을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정부간 협상에서 로비와 설득작업으로 일부 국가의 관심사를 대변하는 목표가 제시되는데 시간을 낭비하기 않고, 국가가 개발을 위해 ‘달성해야 하는 목표’를 위한 협상과정이 되기 위해서 제한된 목록(short list)으로 HLP의 예시안을 줄여나가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성과측정이 가능한 목표가 되기 위해 일부 세부목표에 대한 재고(再考)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세부목표 5e의 음식물 쓰레기 x% 감소의 경우, 음식물 쓰레기에 대한 측정이 도시슬럼 및 개도국 차원에서 가능할 것인지에 대한 현실적 평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HLP도 지속적으로 강조한 바와 같이, 새로운 글로벌 파트너십이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주체들의 개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부산 글로벌 파트너십을 통해 이미 다양한 주체들이 개발 패러다임에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특히 민간부문과 같은 새로운 주체들의 지표 이행 및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큰 성과를 보이고 있지 못하다. 청년고용과 민간기업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Post-2015 국가정책에 이 부분을 포함하는데 있어서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국가개입 사이에 대한 논란의 여지와 같은 거시적인 시스템적 문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2013년 10월부터 시작되는 UNDP의 이행 메커니즘 논의에서는 이런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여 향후 모든 주체가 함께 효과적으로 지속가능한 미래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작성 | KOICA 전략기획부 ODA 연구팀 임소진 상임연구원

참고문헌

국내문헌

임소진 (2012). 국제사회의 Post-2015 개발 프레임 워크 수립동향 및 한국 ODA의 기여방안. KOICA 개발정책 포커스 제14호. 한국국제협력단.

해외문헌

UN (2013). A New Global Partnership: Eradicate Poverty and Transform Economies Through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port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New York, United Nations.

UN HLP (2013a). Communiqué: Meeting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Monrovia, Liberia. Draft. 1 February 2013.

_____ (2013b). Communiqué: Meeting of the High-Level Panel of Eminent Persons on the Post-2015 Development Agenda in Bali, Indonesia. Draft. 27 March 2013.

UNDP (2012). The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Report 2012. New York, United Nations.

보도자료

ACORD (2013). Press Release: ACORD Responds to HLP Report on Post-2015 Agenda . Published on 3 June 2013.
Available at:
<http://www.acordinternational.org/our-work/post--2015-process/press-release-acord-responds-to-hlp-report-on-post2015-agenda/>
[Accessed: 10 June 2013]

Benson, E. (2013). "New International Development Goals: Score or Mis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IIED). Published on 5 June 2013.
Available at:
<http://www.iied.org/new-international-development-goals-score-or-miss>
[Accessed: 10 June 2013]

Green, D. and S. Hale (2013). "How Can Global Goals Lead to Lasting Change at a National Level?" The Guardian. Published on 31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3/may/31/global-goals-lasting-change-national-level>
[Accessed: 10 June 2013]

Kenny, C. (2013a). "The High Level Panel Report: First Reactions".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cgdev.org/blog/high-level-panel-report-first-reactions>
[Accessed: 10 June 2013]

_____ (2013b). "The (Old) Panel and the MDGs: Post-2015 Development". Center for Global Development (CGD). Published on 3 June 2013.
Available at:
<http://international.cgdev.org/blog/old-panel-and-mdgs-post-2015-development>
[Accessed: 10 June 2013]

Lawson-Remer, T. (2013). "Thoughts on the Un High-Level Panel's Post-2015 Report". Devex.

Published on 7 June 2013.

Available at:

<https://www.devex.com/en/news/thoughts-on-the-un-high-level-panel-s-post-2015/81140>

[Accessed: 10 June 2013]

Melamed, C. (2013).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the Long-Awaited UN Development Report". The Guardian.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poverty-matters/2013/may/30/un-development-report>

[Accessed: 10 June 2013]

Morden, J. (2013). "UN Panel's Post-2015 Goals: 'Promising Start' or 'Lacking a Roadmap'?" Devex. Published on 31 May 2013.

Available at:

<https://www.devex.com/en/news/un-panel-s-post-2015-goals/81099>

[Accessed: 10 June 2013]

ONE Campaign (2013). ONE Welcomes UN Vision for Post-2015 Development Goals.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one.org/us/press/one-welcomes-un-vision-for-post-2015-development-goals/>

[Accessed: 10 June 2013]

Oxfam International (2013). Global Leaders Shirk Responsibility to Tackle Global Inequality Crisis.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oxfam.org/en/pressroom/pressrelease/2013-05-30/global-leaders-shirk-responsibility-tackle-global-inequality-crisis>

[Accessed: 10 June 2013]

Palmer, A. (2013). "Leading Transparency Campaigners Welcome UN Development Report". Development Initiatives.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devinit.org/transparency-campaigners-welcome-un-report>

[Accessed: 10 June 2013]

Social Watch (2013). "Bangladesh Right Groups Criticized UN HLP Report on Post-2015 Development Agenda". Published on 4 June 2013.

Available at: <http://www.socialwatch.org/node/16013>

[Accessed: 10 June 2013]

Tran, M. (2013). "New UN Goals Call for End to Extreme Poverty by 2030". The Guardian.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guardian.co.uk/global-development/2013/may/30/un-end-extreme-poverty-2030-goals>

[Accessed: 10 June 2013]

Transparency International (2013). "Transparency International Welcomes Good Governance Goal Proposed by New United Nations Report". Published on 30 May 2013.

Available at:

http://www.transparency.org/news/pressrelease/transparency_international_welcomes_good_governance_goal_proposed_by_new_un

[Accessed: 10 June 2013]

연구자료

ODA연구 2013-07-160



KOICA

한국국제협력단

461-833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대왕판교로 825

Tel. 031-740-0114 Fax. 031-740-0655

<http://www.koica.go.kr>